

# “정시 확대는 공정한 입시 위해 필요”

### 유성엽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 되어야”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읍·고창, 민주평화당)는 5일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정시비율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 80% 정시 20% 정도로, 정시의 비율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입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방법과 항목 및 합격 기준에 대하여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조사 중인 대학 교수들의 자기 자녀 논문 공저 등록과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금수저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더욱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록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정시 확대 방침을 세운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라고 호평하며,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혼선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정시 확대를 이유로 갑자기 장관 사퇴를 떠먹이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안 설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며, “국정화 역사교과서 혼용을 주장하던 분들이 이제와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한다니 섣불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

다. 그러면서 “진정 교육이 걱정된다면, 단순히 선거 아젠다로서 교육을 선점하겠다는

알락한 생각은 버리고 당사자가 직접 구체적 대안을 들고 나와 공개 TV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 양용모 도의장, GM 군산공장 해법 모색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장은 5일 군산지역 도의원과 한국GM 군산공장 노조집행부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양 의장과 이성일 부의장, 양용호·최인정 의원은 자리에서 “GM이 한국GM을 이용해서 본사의 이득만 취해 놓고 일반적인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정부 지원이 없으면 철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무책임한 경영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노조 대표로 참석한 이범로 자문위원과 육성현 사무장은 “한국GM군산공장은 정상화만이 길”이라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양 의장 등은 “군산공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 집행부와 협력해 아주 작은 힘이라도 열심히 보태겠다.”며 “아울러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지원과 협력업체 지원,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에 노동자와 전북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등 진솔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노회찬 “지선 정의당과 평화당 선거연대 없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당 대 당 차원의 선거연대는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특정선거구에서 양당 후보가 출마해 경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건강한 파트너로서 멋있게 경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 간 연대가 모색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의당과 평화당이 당 대 당 선거연대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공군 “F-15K 전투기 1대 추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화하리 인근에 공군 F-15K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공군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구 기지에서 이륙한 F-15K 전투기 1대가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 오후 2시38분경 경북 칠곡군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군은 임무 조종사 2명에 대한 생사를 확인 중에 있다”며 “현장에 사파견장 수습과 조사를 위한 인원을 급파했다”고 덧붙였다.

공군본부는 현재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조종사 생존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

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투기가 추락한 칠곡군 유학산 인근에서 수 초 간격으로 지속적인 폭발음 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간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4시34분경에는 유학산 9부능선 인근에서 전투기 잔해가 발견됐다. /뉴시스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 오늘 국회 전달

## 靑 “개헌연설보다 국민투표법 집중”... 국민투표법 개정 안될 시 개헌투표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는 국회 연설보다 국민투표법 개정에만 집중할 방침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한병도 정무수석 편으로 오는 6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내일(정세균) 국회의장 앞으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국회연설 계획이 원점 재검토된다는 관측에는 “(국회 연설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일단 그 문제에 집중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 한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진행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말까지 이 부분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잃었다.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한 것도 그 문제(국민투표법)가 걸려있으니 개헌 문제 전반을 (대통령이 국회연설로) 말씀하는 것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 국민투표는 어렵다고 보편되는가”라는 물음에는 “일단 두고 보자”고 밝혔다.

지난 4일 임종석 실장은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복지·보건지출 지난해 129.5조... 7년새 1.6배 ↑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이 12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81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지출규모가 7년새 1.6배 늘어났다.

다만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규모는 이 같이 분석됐다. 이는 국가 총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3%이다. 증가율도 국가 총지출(4.6%)을 대비 가파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19조1272억원, 보건이 10조3558억원으로 최근 7년 평균 연간 7.1%, 5.1%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44조9930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21조2421억원, 노동 18조2653억원, 기초생활보장 10조4904억원, 노인·청소년 9조8013억원 등 순이다.

노인·청소년은 지출비중이 높지 않지만 최근 7년 연평균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았다. 무상보육 제도 도입에 따라 보육·가족·여성(5조9225억원)도 연평균 증가율이 14.0%로 높았다.

보건은 건강보험 지원이 7조5811억원, 보건 의료 2조3405억원, 식품의약품안전 4322억원 등 순이다. /뉴시스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한민안국)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 01. 위미계승 맞춤지원 51,370,679,216
-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 04. 인헌 지식보급 5,733,677,999
- ...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홍보대사 류수영